

다산포럼

정지창



언제부터가 새해 첫날 해맞이를 하러 산꼭대기나 바닷가를 찾는 일이 부질없게 여겨져 요즘에는 아예 집을 나설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늙었다는 징표일 것이다.

다가 번번이 손해만 보니까, 고추 심으랴 때 배추 심고 배추 심으랴 때 고추 심는 청개구리 심보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건 그렇다치고, 아무리 냉담하고 신경이 무딘 사람도, 죄 없는 가족들이 집단으로 생매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희망찬 새해 설계를 꿈꿀 수 있던 말인가.

나는 체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일로매진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새해 첫날 책상머리에 올해의 목표를 써붙여 놓고, 긍정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가지려고 자기 최면을 거는 인간을 나는 좋아할 수 없다. 그저 피식 웃음이 나올 따름이다.

꿈이 생각해보면, 이런 나의 습성은 타고난 체질이라기보다는 속고 살아온 세월의 탓이 크다. '선진조국'이니 '정의사회 구현'이니 '747'이니 하는 화사하고 뼈까번쩍하게 치장된 헛된 희망에 휘둘리다가 낙관적 전망이 쓰디쓴 현실로 바뀌는 일을 수없이 겪다 보니, 일종의 자기보호본능에 의해 그런 습성이 몸에 밴 것 같다. 순박한 농민들도 관에서 시키는 대로 했

새해에는 헛된 희망에 속지 않기를

대규모의 공장식 축사에서 사료와 항생제 만을 먹여 키우는 가축들, 병에 걸려 상품성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그렇게 대량 학살해도 되는 것인가. '살처분'이라는 억지스러운 용어에서 풍기는 인간의 오만함과 잔혹성에 소름이 끼친다.

불교의 윤회설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 시대의 잔혹한 인간들은 나중에 대부분 축생이나 이승, 아귀, 지옥 같은 데로 떨어질 것 같다.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이고, 돼지 한 마리를 0.

4평의 공간에, 압타를 한 마리를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 움푹달라 못하게 가둬 놓고 대량사육하면서 어떻게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49재를 지내는데 가축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봉은사를 비롯한 여러 절에서 대량학살된 동물들을 위해 올린 천도재는 나처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가축 사육 방식과 육식 문화를 되돌아 보고 바꾸는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나는 해맞이는 하지 않았지만 연초에 문경의 봉암사를 다녀온 적

솜씨로 시멘트를 발라 성형을 한 얼굴 때문에 보기가 민망했다. 명진 스님 등 선방 스님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당시의 주지 스님이 자기 나름의 소신에 따라 손을 대서 이 모양이 됐다고 한다. 4대강사업처럼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도 역지로 밀어붙이면 안 하느니라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리영희 선생이 쓰시던 만년필을 명진 스님이 물려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생전에 서울의 봉은사를 자주 찾았던 리 선생이 하루는 '전환시대의 논리' 등 그의 중요한 원고를 썼던 만년필이라며 스님에게 불멸량 만년필을 주셨는데 일말결에 받고 생각하니 의발을 전수받은 것 같아 영 어찌가 무겁다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은 글쟁이가 아니라 말로 쉴을 푸는 라디오 체질인데, 왜 만년필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인들은 모두 글이 아니라 말로 진리를 설파했잖습니까?” “듣고보니 그렇군요. 예수와 모하메드는 문맹이란 설도 있더군요.” 이렇게 웃음으로 얼버무리면서 우리는 오는 22일 봉은사에서 봉행되는 리 선생의 49재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겉도는 혁신도시, 정부 지원 '헛구호'인가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겉돌고 있어 2012년까지 제대로 추진될 지 암담하다는 지적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은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고도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고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택지 분양도 지금까지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당 15개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은 부지 매입 등 이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부지 매입을 마친 5개 기관은 착공 일정을 잡지 않아 내년까지 입주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다 민간 기업들도 혁신도시 투자를 꺼려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2013년~2015년으로 미뤄지는 등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건설사에 매각할 15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 밖에 분양이 안 된데다 아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도 2013년 이후

로 미뤄져 공공기관들이 내년 말까지 이전하더라도 주택 없이 공공기관 건물만 남아있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요인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한 데다 조성원가가 3.3m당 149만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결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러차례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으나 가시화된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혁신도시가 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땅값 인하가 절실하다. 4000억 원에 이르는 초빙형 등 3가지가 중심이 이뤄지면 조성원가를 3.3m당 109만 원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전을 미루는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와 같은 강력한 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소홀했던 MB정부가 이 마저 외면한다면 두고두고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허울뿐인 '교장 공모제' 애초 취지 살려야

학교 교육개혁을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겉돌고 있다. 공모를 통해 경영 마인드를 갖춘 능력있는 교장을 발탁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연공서열의 변형에 불과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올 신학기에 공모를 통해 각각 12명, 25명의 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 4곳, 전남 8곳은 최소 공모 조건인 2명을 채우지 못해 재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전남은 7개 학교에서 단 1명만 지원, 결국 적부상으로 교장을 선발했다.

그나마 선발된 응모 교장 대부분은 현직 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에 선발된 교장들도 도서벽지 학교에서 도시 근교 학교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교장 공모제가 승진이나 영전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교장 공모제의 유명무실은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 교장 공모제는 누구

나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과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내부형,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초빙형 등 3가지가 중심이

이후로 교과부 장관이 취임한 뒤 초빙형을 50%로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에는 초빙형으로만 모집했다. 퇴직 교장은 법규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 이번 공모는 현직 교장, 교장으로 채용 수백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무늬만 공모이지 또 다른 연공서열의 다름이 없다.

지금 우리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교원 훼손도 심각하다. 학교 교육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교장 공모제가 도입된 이유다. 그렇다면 내부형이든 개방형이든 교장 공모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교장이나 장학사, 교감 등 기득권에 굴복해 교육개혁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공교육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자화상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정의춘



민주주의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정치제도다. 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참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수준 향상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정치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스스로

대안적 시민성이 요구된다.

첫째, 모든 시민성의 기초인 공감과 연대이다. 정의·자유·평등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과 함께 다른 시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조직의 동료 시민과의 연대와 공감은 모든 시민성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

둘째, 인권(자유, 평등)과 정의존중이다. 공감과 연대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신과 함께 동료 시민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할 책임을 통감하는 것으로 발전시킨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가 정의롭게, 다시 말해 공동체에 동참하고

기고

김운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량이 가위익 사할 만큼 많아지고, 인터넷을 무기로 독점의 벽을 깨뜨린 정보가 넘바다까지 무한 확산되는 시대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합리적이고 균형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 정보에 의지하다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환경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까지는 20대까지 공부하고, 그 이후 20대까지 공부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였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20대 이후에는 지식의 축적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

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존감까지 상실하는 경우도 많다.

명문대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교육·사회 풍토는 결국 실업계고 출신으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한 '로봇 영재'가 입학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 학생은 국제 로봇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받은 등 어느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한 가지 능력만 가지고도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그는 비(非)과학고 출신을 위한 보충수업을 받으면서까지 치른 미·적분 시험 성

로봇 영재의 죽음과 대학 선택

다. 그러나 현재는 20대까지 공부했던 지식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는 평생 교육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여전히 '명문대 진학만이 직업을 선택하는 일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선이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여전히 산업사회의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대학 선택기준은 올바른 자아관념과 자존감을 형성해야 할 고등학교 시기를 대학진학만을 위한 기계화 시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을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보낸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자신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소질과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올바른 자아관념을 형

적에서 F를 받으면서 그나마 로봇 영재로서 가졌던 자존감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였으리라 추측해본다.

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하나의 모델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따라오지 못하면 낙오자로 만들어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구시대적 시스템에서 오는 부작용일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식축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한 줄기 에너지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을 인생의 최종 종착점이라는 기준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대학 선택 기준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이공대학 해양경찰과 교수)

국제결혼 희망 남성들에 기본 소양교육을

최근 광주·전남은 물론 농촌 총각들과 동남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 여성들은 결혼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여성단체들이 나서 이주여성들에게 우리말과 문화를 가르쳐주고, 자녀들을 돌봐주는 등 도움이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필자도 이 단체에서 이주여성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언어와 문

화적인 어려움을 넘어 결혼생활 전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폭력과 학대이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국국적도 없을뿐더러 상담당국이 부족해 이런 사실을 참고 지내고 있는 현실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물론 다문화 가정에서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에게 결혼 전 기본 소양교육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본다.

▲이영성·광주시 동구 대인동

無等鼓

출근 측은 모양이다. 지난해 말부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 보름 넘도록 계속되자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3한4온'은 '3한4한'이 된지 오래고, 이젠 도대체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오는 20일이 대한(大寒), 그러나 일기예보에 따르면 '대한이 소한 집에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

는 옛 말이 유행하는 것 같다. 소한이 가장 춥고 대한이 가장 덜 춥고 서서히 풀린다는 의미의 이 속담은 '1월 말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다'는 기상청 예보 때문에 잠시 접어둬야 할 판이다.

관다람쥐를 이겨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높은 기름값 때문에 전열기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예비전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르자 공공기관은 청사 실내온도를 낮추도록 했다. 아예 전열기구를 회수한 곳도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기업체에서는 직원들

에게 조끼와 카디건, 스타킹을 나눠주며 동장군과 맞서고 있다. 한때 가난한 사람들의 겨울나기 전용으로 여겨졌던 연탄은 귀한 물품으로 탈바꿈한 지 한참 지났다. 내복 입기 생활화가 펼쳐질 지 모르지 않자 입은 듯 만듯한 추감을 지닌 스킨코트까지 동장해 특수를 노리고 있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오를 오를 떠는 이들을 보고 '옛날엔 이 정도 돼야

겨울 맛이 났다'고 한 마디씩 건네기도 한다. 한겨울이면 동네 개울이 얼음장으로 변하는 것은 예사일이고 한강에서 썰매를 탈 정도가 돼야 좀 춥구나 했다는 것이다.

지쿠온난화 등으로 무더위와 한파가 극심해졌다는 분석도 있지

만, 춥다고 생각하면 더 떨리고 답답다고 생각하면 떨어 더 난다는 이들도 있다. 세상 일에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다. 추위가 조금씩 수북 따듯한 봄날은 우리 가슴 실내온도를 낮추도록 했다. 아예 전열기구를 회수한 곳도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기업체에서는 직원들

동장군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리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